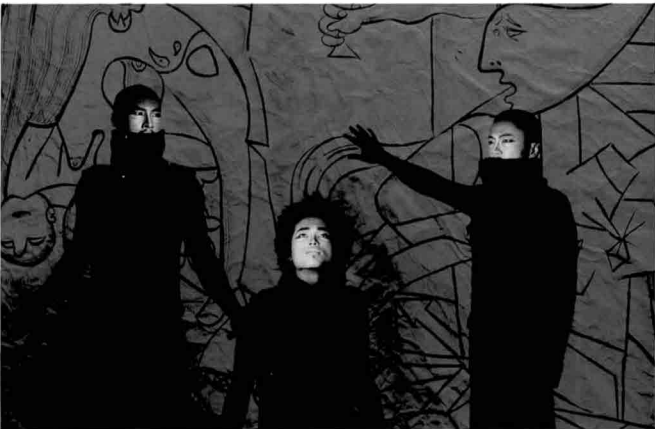


미술이 무대로 간 까닭은?

# 상상 그 이상! <Drawing Show>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방학선물을 해주고 싶으나 생각나는 것이 물놀이 내지는 맛있는 외식 정도가 고작인 부모들의 빈곤한 레퍼토리에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한다. 그림으로 쇼를 보여주는 무대. 어설프게 상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른들도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특별한 무대로 달려가길. 에디터 이승민 문의 (주)팬타토닉(02-766-7848)



처음 '샌드드로잉(Sand Drawing)'이란 걸 접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모래라는 생각지도 못한 재료를 사용해 예술탄생의 경이로운 순간을 생생히 펼쳐 보여준 퍼포먼스. 단발적인 이벤트성 퍼포먼스였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대학로 질러홀에서 공연하고 있는 <드로잉쇼>는 이에 그림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90분에 걸친 완벽한 한 편의 공연으로 만든 최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샌드드로잉>을 접해본 이들은 일말의 상상이 가능할 듯도 한데,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캔버스에 붓을 대는 것을 시작으로 매 장면마다 바뀌는 다양한 소재와 기법, 그리고 특수 효과까지 관객들은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완성되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미술 같은 믿기지 않는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 <드로잉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연은 선에 의해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는 장면이 많다. 하지만 사용되는 미술기법에 선 그리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이 되는 드로잉뿐만 아니라 조소, 스템핑, 프라타주, 마블링에서부터 직접 개발한 신개념 미술기법까지 다양한 형태의 신기한 미술 테크닉이 총동원된다.

단조로운 수묵화가 순식간에 화려한 숲으로 변신하고, 그림 속에 있던 절벽에서 시원한 폭포가 떨어지는가 하면 손가락을 사용한 핑거드로잉으로 잭슨 폴록류의 추상화를 그리기도 하는 등 무대를 보고 있노라면 미술 공연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쇼 전체에서 미술은 단 1%도 없다. 하지만 플라워 드로잉, 빛 드로잉, 아광 드로잉 등 현란하게 펼쳐지는 퍼포먼스 앞에서 관객은 계속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놀라운 공연 뒤에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김진규 예술감독의 드로잉 연구 노력이 숨어 있다. '그림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연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연구를 이어온 결과 세계 최초의 드로잉 퍼포먼스를 탄생시킨 것. 공연을 선보이는 (주)드로잉쇼는 이번 작품의 컨셉트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드로잉쇼>만을 위한 창작 집단으로, <드로잉쇼>를 세계적인 공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장기 비전을 갖고 2007년에 설립됐다. <드로잉쇼> 공연의 소재 개발과 재료 연구, 미술기법 연구에만 100% 매진함으로써 공연의 완성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편 <드로잉쇼>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공연 종료 후 미술품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 현장을 직접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관객들에게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체험이 될 듯. 경매에 올려지는 작품은 관람 당일 공연에서 그려진 대표작 중 하나가 선택된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 무대 위 영상을 통해 한 명의 아이와 그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소개되고, 경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바로 그 아이에게 전달된다. 미술과 공연예술의 미술 같은 결합, 그리고 그 가치를 더 뜻깊은 곳에 환원하는 <드로잉쇼>는 올 한해 미술계와 공연계 양쪽에 가장 널리 회자되고도 남을 이슈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 ☺